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사고개요 | 일 시 | ’09. 2. 15(일) 08:25 |
| 장 소 |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02-10(SK케미컬 공사현장) |
| 사고원인 | ○ H빔이 붕괴되면서 가시설위에 있던 콘테이너 박스 추락  ○ 지반약화로 인한 붕괴 |
| 피해내용 | 인명피해 | 10명 (사망자 3명, 부상자 7명) |
| 재산피해 | 흙막이 토류벽(길이 70m × 깊이 22m) 붕괴 |
| 주 요  조치사항 | 신고  ․  접수 | ○ 성남시 사고대책본부 설치․운영  - 일시 : 2009. 02. 15.(일) 13:00  - 장소 : 성남시청 재난종합상황실  - 구성 : 건설교통국장 본부장 외 6개반 30명  ○ 시공자 사고대책반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피해자  동향파악  ○ 2차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차단 지시(경찰관 배치)  ○ 현장 응급복구 대책 수립지시  ○ 원인조사를 위한 구조진단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요청 |
| 사고수습  상 황 | ○ 장비 : 57대(소방차 3대, 구급차 5대, 구조차 9대,  굴착장비 30대, 기타장비 10점)  ○ 인원 : 244명(소방관 136명, 공무원 40명, 경찰관 60명) |
| 문 제 점 | | ○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달 초부터 지반이 흔들리고 옹벽 H빔 위에 설치한 구조물이 흔들리는 등 이상 징후를 느껴 수차례 경고했지만,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소홀이 문제점으로 제기  ○ 암반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설계와 공사 진행  ○ 계측기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현장 안전조치 미흡 |

판교테크노밸리 SK케미컬 공사현장 붕괴 사고